



4면

전주 생태동물원
영화·방송 촬영지로 '각광'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음 2월 22일) 제24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소상공인 살리기' 코로나 추경 4300억 푼다

인건비·운영비 등 총 110만원 경영유지비 지원 절반인 총 6만여 곳 혜택... 4월 한달간 신청접수

전북도는 13일 도의회에서 긴급 추경 통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까지 총 4,300억원 수준의 특별지원대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11만7천개) 중 절반이상(6만여개)에게 공공요금 60만원과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총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절반이상인 6만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4월 한달간 지원 신청 받아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던 카드수수료를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억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카드수수료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관광숙박업체, 관광이용시설업 등 관광업계에 대해 마케팅비용과 음식점 업종 전환 시 설비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월평균 급여 215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1만원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4개월간 월 7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75%까지

확대 방편에 있어 도내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용노동부)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 최대 6백만원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소독 방역을 위한 휴업은 물론 소비자의 방문기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매출 급감으로 당장 임대료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백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자가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에게는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도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희·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도자금 1,250억원을 포함 총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한다.

시군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855억원에서 7,74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5~8% 운영되던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도는 시군의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의 2%, 27억을 지원하였으나 추가로 1%, 28억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 칼바람으로 바람골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고비를 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스타트'

추경 통과...1인당 52만 7000원, 5만 여명 혜택 시, 자격요건·선별·접수방법 등 구체화 집중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게 됐다.

지난 13일 전주시의회는 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42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 등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도 지급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 예산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기

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테스트코프스(TF)팀을 가동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이번 추경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 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정비 확충사업, 책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승통을 열 수 있게 됐다.

박병술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오늘 의결된 예산이 힘든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의료원 의료진을 격려하는 송하진 도지사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13일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도내,외 확진자 수을 위한 의료 준비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관련기사 2면)

긴급돌봄 수요 증가세...1830명서 1979명으로 늘어

개학연기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긴급돌봄이 운영 중인 가운데 도내에서도 개학연기 3주차(16~20일)를 맞아 긴급돌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교육부의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총 14만4506명이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 61만 9022명 중 6516개월 8만2701명(13.4%), 초등학교는 272만11484명 중 4634개교 6만490명(2.2%), 특수학교는 2만6084명 중 139개교 1315명(5%)이 희망했다.

이는 1차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만4102명(20%) 증가한 수치다. 이날 기준 도내 유치원 긴급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단설유치원은 32

명, 병설유치원은 490명, 사립유치원은 3,147명으로 총 3,969명이 참여했다. 또한 초등 긴급돌봄은 돌봄교실 운영학급수 448곳에서 2,445명이 신청해 실제 1,979명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수는 466명이다. 이는 지난 10일 자료에서 나타난 1,830명보다 실제참여 학생 수가 다소 증가했다. 수요대비 실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 긴급돌봄 이용 학생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수학교는 32명이 신청해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부부 등 긴급돌봄교실 희망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참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